

마애불은 또 다른 '백진'을 기다리고...

마애불이 있는 사찰 - ⑤ 문경 대승사·대승사 마애여래좌상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 자락, 마애불을 찾아가는 길은 실개천으로 시작됐다. 전두리, 마을 어귀 실개천엔 아직도 마른 갈대들이 서있다.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풍경엔 아직 겨울이 있었다. 꽃들도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불산에 이르자 일 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머리에 연꽃을 꽂은 부처님이 계셨다. 대승사 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39호)이다.

머리에 연꽃 꽂은 부처님

고려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은 대승사에서 약 2km 쯤 떨어져 있다. 대승사의 산내 암자인 윤필암과 묘적암 사이에 있다. 가깝기로는 윤필암에 가깝다. 대승사를 약 1.5km 남겨 둔 길에서 윤필암(오른쪽)과 묘적암(왼쪽) 이정표를 만난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윤필암 바로 밑 주차장에 차를 두고 묘적암 쪽으로 걸으면 된다. 마애불을 알리는 이정표는 없다. 약 100m 정도 걸으면 오른쪽으로 돌계단이 있다. 약 30m 정도의 돌계단을 오르면 머리 양쪽에 연꽃을 꽂은 부처님이 연화좌대에 앉아 계신다. 다른 마애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머리 위에는 별석을 사용

산내암자 윤필암·묘적암 사이 위치

머리에 연꽃 모양 새긴 독특한 양식

백진 모친 위해 중창했던 미륵암 터

하여 천개(天蓋)를 만들어 놓았다. 마애불은 화강석의 자연석벽에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서 조성한 것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균열이 생겼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마애불의 전체 높이는 6m이고, 연화좌대 높이는 3.7m이다. 보통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 마애불에는 목에 줄이 두 개뿐이어서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손은 어깨 위로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른손은 손가락을 조금씩 오므려 북부에 대고 있다.

사라진 미륵암

조선시대 학자 양촌 권근(1352~1409)의 <사불산 미륵암 중창기>에 의하면 마애불 자리에 '미륵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산 정상에 밭 둥이 땅에 박히지 않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사면에 불상을 새겨 사불산이라 이르고, 그 중간에 법왕봉이 있는데, 남쪽 절벽에 자씨(慈氏)의 얼굴을 새긴 바위가 있으며, 그 곁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 미륵암이다."고 했다. '자씨의 얼굴'은 '미륵불'을 뜻하는 것으로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을 말한다. 기문에 의하면 미륵암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 폐허가 된 후 1385년에 중창이 시작되는데, 백진이라는 사람의 발원이었다. 백진은 경북 영해에서 살았는데, 1383년에 침략한 왜구들을 피해 피난을 떠난다. 노모를 등에 업

고 먼 길을 떠돌다 다다른 곳이 사불산 기슭이다. 그러나 노모는 힘든 피난길에서 얻은 병으로 곧 숨을 거두고 만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슬프게 보내던 백진은 불효의 과오를 참회하고자 불사의 원을 세운다. 그리고 산에서 만난 노스님으로부터 미륵암 중창을 제안 받게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륵암터로 달려간 백진은 바위 속에 앉은 부처님을 뵈는다. 연꽃을 머리에 이고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수인으로 중생을 살피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힘들었던 백진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백진은 불사를 결심한다. 그리고 해안, 승부 스님을 비롯한 대중과 1387년에 불사를 회향한다. 그 후 1388년에 지운 스님의 도움으로 <묘법연화경> 1부와 <부모중경> 3권을 인출하여 봉안한 후 다음 해에 고향인 영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미륵암은 사불산에서 사라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사지가 한 두 곳일까. 미륵암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마애불은 '미륵암 마애여래좌상'으로 불리고 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앞서 말했듯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의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는 따로 없었다. 길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 간 부처님 자리였다. 아득한 시절 중창 때 보았듯이 이 자리는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인 듯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드는 자리라고 할까. 마애불은 언젠가 미륵암을 다시 세울 또 다른 '백진'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대승사는

거리상 마애불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마애불을 모신 대승사는 사적에서 읽었듯 사불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대승사 창건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탐상사불산조와 천축의 <유사불산기>, 권근의 <미륵암중창기>, 인신 스님이 쓴 <대승사사적후기> 등이 있는데, 먼저 <삼국유사> 사불산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죽령 동쪽 100여 리 남쪽 산이 있는 것이 우뚝 솟아 높은 재와 같았다. 진평왕 9년 갑신년 갑자기 4면이 일장씩 되는 큰 돌이 하나 나타났다. 그 돌에는 사방 여래의 불상이 조각되었으며, 모두 붉은 비단으로 싸여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떨어진 것이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행차하여 공경히 절하고 바위 옆에다 절을 짓고 대승사라고 하였으며, <후략>"

대승사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뒤 1604년(선조 37)부터 1701년(숙종 27)까지 법당을 비롯하여 많은 당우를 중수했다. 1956년 화재로 다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1966년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에는 보물 575호인 대승사목각탱화(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가 있다. 목각 탱화는 주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며, 현재 전국에 7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한 점이 관계문서와 함께 대승사에 남아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목각탱 중 대승사목각탱이 규모 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조각양식에서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다.

문경 대승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9호)은 대승사 산내 암자인 윤필암과 묘적암 사이에 있다. 머리에 연꽃 모양을 새긴 독특한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대승사 전경



보물 575호인 대승사목각탱화(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보기

<사찰>

-**김룡사**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운달산
588년(신라 진평왕 10)에 운달(雲達) 스님이 창건하여 운봉사(雲峯寺)라고 했다. 그 후 1624년(인조 2)에 혜종 스님이 중건했는데, 1642년 화재로 도량이 모두 소실됐다. 1649년에 의운·무진·태후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김룡사로 개칭했다.

<명소>

-**문경새재** / 경북 문경시 문경을 새재로 1156 문경읍에 있는 고개로 일대 주변이 명승 제32로 지정되어 있다. 옛 이름은 조령으로,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 개척한 관도로 영남에서 소백산맥의 준령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며 정상 높이가 642m의 고개이다. 새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세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설과 하늘재와 이우리재(이화령) 사이(새)에 있는 고개라는 설이 있다. 한편 옛 문헌을 인용하여 초점(草岫), 즉 풀(역새)이 우거진 고개라는 주장도 있다.

-**KBS 왕건 촬영장** / 문경시 문경을 상소리 문경새재 주흘관

대규모의 KBS 태조왕건 오픈세트장 고려촌은 KBS가 방영한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야외세트장으로 한국드라마 사상 최대 규모의 야외세트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경온천** / 문경시 문경을 하리394
문경온천은 2001년 3월 24일 개장했다. 2,500여 명이 동시에 입욕할 수 있는 현대식 대형종합온천이다.

지하 900m 화강암층과 석회암층 사이에서 분출한 칼슘 중탄산천과 지하750m 화강암층에서 분출한 알칼리성 온천수를 공급하여 한 번의 입장으로 2가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보양온천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식당>

-내아들밥상 / 054-555-1234
-진남매운탕 / 054-552-7777

<숙박>

-문경관광호텔 / 054-571-8001 문경시 문경읍 새재2길 32-11
-문경온천 / 054-571-2002 문경시 문경을 하리 394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퇴마·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 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퇴마·자극요법·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신병·천도재전문 **현오스님** 을 찾으세요

